

돼지고기도 쇠고기와같이 품질(육질)등급제도입



축산물등급판정소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시 및 돼지고기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양돈농가의 불안감 해소와 국내산 돼지고기의 차별화를 위해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같이 육질등급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소매단계에서도 육질등급에 의해 단계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금번 품질(육질)등급기준 개정(안)은 육가공업체의 돼지고기 가공형태 조사(06.4.26~27), 돼지고기 판매통가(06.6.8) 및 돼지고기 산점살과 복선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조사(06.6.28~7.7) 등 비교적 다양한 조사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개정에 대비해 품질(육질)등급판정을 지난 4.2~4.20일까지 농협부천공판장에서 총 11,34통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다. 시범 적용 결과를 살펴보면, 육질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0.4%, 1등급 73.7%, 2등급 16%, 3등급 9.9%로 나타났다. 육질1등급과 2등급의 평균 경락가격 차이는 640원/kg, 2등급과 3등급은 1,005kg원으로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개정(안)의 본격시행에 대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 직무교육을 마쳤으며, 6월부터는 모든 돼지 작업장에 시범적용을 확대할 계획과 함께 대외홍보를 실시하여 개정기준 적용이 자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등급판정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활동 활발히 펼쳐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금년 들어 실시한 주요 행사로는 2007년 도·광역시 웨스턴비(07.5.3~6, 서울부역전시컨벤션센터), 2007년 제주 도새기축제(07.5.12~13, 제주 경마공원) 등 모두 8차례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홍보행사내용은 축산물등급제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 소개 및 모형전시, 등급판정 계단 및 홍보책자 배부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앞으로도 대국민 직접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축산물의 소비 활성화 노력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닭고기등급판정안내홍보전단지배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3월 26일부터 개개한 닭고기 등급판정 사업에 대한 안내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배부 등 닭고기 등급판정 홍보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위생적이고 고품질인 닭고기 생산 및 유통이 활성화되어, 국내산 닭고기의 경쟁력제고와 학교급식 등 소비자가 보다 쉽게 닭고기 품질수준을 판단할 수 있기를 기대



하며, 전국의 지소 조식을 활용하여 각종 교육 및 지역 축제 등에서 닭고기 등급판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2007년 축산물등급판정사 직무교육 실시



'07년 상반기 축산물등급판정사 직무교육에 시는 2007. 7월부터 시행예정인 돼지도육육질등급판정기준에 대한 집중 교육을 전국지소근무자를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교육장소는 농협서운공판장(소도체, 돼지박피), 안양 협신식중(돼지탕박)에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1박2일, 3회) 실시하였다.